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5년 6월 29일(일) 제1546호

모여라 한국 교회! 기도의 자리로!

7월 14일 오후 2시 '714연합기도대성회' ...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올림픽체육관

'714연합기도대성회'가 오는 7월 14일(월) 오후 2시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올림픽체육관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호 6:1)를 주제로 막 오른다. 이번 714기도대성회는 한국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714연합기도대성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QR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온누리교회 성도 1천 명과 안내 봉사자를 모집한다. 봉사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물품 배부, 좌석 안내, 식사 및 해산 정리 등을 한다.

이번 714기도대성회는 세 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오후 2시)에서는 이인호 목사(더사랑의교회),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 환영 인사와 비전 소개, 안광복 목사(청주상당교회) 설교가 이어진다. 정명호 목사(해성교회), 김용석 목사(서울반석교회)가 기도회를 인도한다. 찬양은 청주상당교회 찬양팀과 청년찬양팀(경북)이 인도한다.

두 번째 세션(오후 4시 15분)에서는 이인호 목사가 714 기도 비전을 소개하고, 유기성 목사(위드지저스미니스트리)가 말씀을 전한다. 박성수 목사(부산온누리교회), 이건호 목사



재작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714 기도대성회'.

(순복음대구교회)가 기도회를 인도한다. 찬양은 선한목자교회 찬양팀과 청년찬양팀(경기)이 한다.

세 번째 세션(오후 6시 50분)에서는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가 제4차 로잔대회 및 714연합기도대성회를 소개하고, 최병락 목사(강남

중앙침례교회)가 말씀을 전한다. 문대원 목사(대구동신교회), 이신사 목사(남군산교회), 이해영 목사(성민교회), 이인호 목사가 기도회를 인도한다. 찬양은 강남중앙침례교회 찬양팀과 청년찬양팀(서울)이 한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한 손에는 복음! 한 손에는 사랑!

여름 아웃리치 국내외 294개 팀 5,517명 참가

2025 여름 아웃리치가 시작된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한 손에는 복음,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열방으로 흠여진다. 7월과 8월 이어지는 여름 아웃리치에는 성인 공동체 해외 29개 팀 450명, 국내 16개 팀 432명, 대학청년부 해외 63개 팀 919명, 국내 136개 팀 2,827명, 차세대 해외 27개 팀 501명, 국내 23개 팀 388명이 참가한다(6월 27일 기준).

해외 아웃리치는 미얀마, 일본, 튀르키예 등지에서 한다. 선교지 방문, 선교사 위로, 어린이 사역, 교회 보수 등의 사역을 한다.

국내 아웃리치는 춘천, 제주, 남양주, 광주 등지에서 한다. 군 장병 초청잔치, 마을 전도, 노방 전도, 교회 보수 등을 한다.

미디어본부에서 '2025 여름 아웃리치 동영

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8월 31일(주일)까지 올해 여름 아웃리치 영상(틸스, 숏츠 등)을 60~90초 분량으로 제작해서 응모하면 된다. 영상에는 비공개 지역 등 노출되지 않아야 할 정보가 들어가면 안 된다. 제작 영상을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해시태그(#온누리아웃리치2025) 하거나 미디어본부 이메일(onnurismart@gmail.com)로 보내면 된다.

〈온누리신문〉에서는 여름 아웃리치 사진과 간증 원고를 모집한다. 매주 월요일 오후 10시까지 간증(한글 파일 기준 글자 10포인트로 A4 용지 1장)과 사진(사역 사진, 간증을 쓴 성도 사진)을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면 7~8월 〈온누리신문〉에 순차적으로 게재한다.

/ 홍하영 기자

한일청년연합집회 'The Way'

7월 4~5일 일본 요코하마

한일청년연합집회 'The Way'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전 4:9)를 주제로 7월 4일(금)과 5일(토) 일본 요코하마 사카에 공화당과 혼고다이 그리스도교회에서 열린다. 한일 양국 청년 약 60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7월 4일 'The Way'는 요코하마 사카에 공회당에서 열린다. 이서진 목사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요일 4:10), 사기사가 타이치 목사 '청년x베테랑' (출 17:12)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다.

7월 5일 열리는 'YUME 콘퍼런스'는 혼고다이 그리스도교회에서 진행된다. 한일패널 토의, 소그룹 쉐어링, 레크리에이션, 팀 발표, 집회 등이 이어진다.

문의: 02-3215-3759

양지온누리교회 창립 13주년

6월 28~29일 감사예배

양지온누리교회가 창립 13주년을 맞이했다. 이를 축하하는 '창립주일감사예배'를 6월 28일(토)과 29일(일) 양지온누리교회 김사무엘홀(본당)에서 드린다. 이날 창립주일감사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에게 국수를 제공한다. 지난 6월 22일(일)에는 창립 13주년을 기념하며 전교인 선교바자회를 했다.

양지온누리교회는 2012년 국내 10번째 캠퍼스 교회로 창립했다<관련 기사 4면>.

7월 5일~8월 10일 '차세대 여름 사역'

동대문중앙공동체 '차세대 응원단', 학생 참가비 지원

2025 차세대 여름 사역이 7월 5일부터 8월 10일까지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와 외부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예수님의꿈아이(영아부·유아부·유치부)와 꿈이자라는땅(유년부·초등부·소년부)은 '하나님의 꿈을 입은 요셉'을 주제로 성경 퀴즈, 적용 놀이, 체험 활동 등을 한다. 파워웨이브(중고등부)는 'His Plan'을 주제로 여름 수련

회를 한다.

동대문중앙공동체는 매년 여름 '차세대 응원단'이 된다. 차세대 여름 사역 학생 참가비 50%를 지원한다. 단순한 재정 후원을 넘어 다음세대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과 응원을 보내고 있다. 더 많은 공동체에서 차세대 응원단이 되어주기를 소망하고 있다.

문의: 02-3215-3521

미디어본부에서 알립니다

해킹 걱정 없는 예배

CGN이 운영하는 기독교 OTT '퐁당' (fondant)에서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주일예배를 안전하게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OTT '퐁당'을 활용해서 예배 생방송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최근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새벽기도회와 주일예배 실시간 방송 도중 해킹 시도와 악성 콘텐츠 삽입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배 도중 갑작스러운 중단이나 불건전한 외부 개입은 하나님께 집중하려는 마음을 방해하는 심각한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온누리교회는 새벽기도회와 주일예배를 기독교 OTT '퐁당'에서 동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OTT '퐁당'은 기독교 콘텐츠에 특화된 방송 시스템과 보안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킹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정적인 예배 시청 환경을 제공합니다. 유튜브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이지만, 그만큼 악의적인 공격에 취약합니다. 반면 기독교 OTT '퐁당'은 광고 없이 예배만을 위해 설계된 플랫폼으로, CGN의 기술적 지원과 보안 체계 덕분에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새벽기도회와 주일예배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OTT '퐁당'에서는 온누리교회 모든 새벽기도회와 일일 주일예배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기(VOD)도 제공합니다.

접속도 쉽고, 앱으로도 편리하게

기독교 OTT '퐁당'은 웹사이트(www.fondant.kr)뿐 아니라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앱에서 알림 설정을 하면 예배 시작 전 푸시 알림으로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예배 생중계 외에도 큐티 영상, 간증, 성경 강해 등 다양한 영적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어서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기독교 OTT '퐁당'에서 예배드리는 방법

1. 웹사이트 접속: www.fondant.kr
2.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 '퐁당' 검색 후 설치
3. 온누리교회 예배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4. 매일 새벽, 매주 주일 클릭 한 번으로 실시간 예배 참여

온누리교회는 성도들의 안전하고 깊은 예배 경험을 위해서 기독교 OTT '퐁당'을 통한 예배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Come, Lord Jesus!
Revelation 22:20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되는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도 무엇인가 마음에서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마련입니다. 모든 인간이 누려야만 했고, 누릴 수 있었던 낙원에 대한 향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낙원이었던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에게는 그 향수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에덴동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두 개의 나무입니다. 하나는 생명 나무요,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금지된 나무입니다. 이 두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발전시키고 성숙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두 나무가 서로 다른 목적으로 지음 받았습니 다. 먼저 생명나무는 그 실과를 먹음으로써 육신이 영원히 죽지 않는 상태로 점점 변화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영원히 존재케 하고, 더 높은 수준의 생명력으로 존재하게 하는 특별한 나무를 창조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지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금지된 명령을 지키는 반응을 통해서 인간의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먹지 말라”는 말씀 앞에 서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의지적으로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로서 영원히 성장해야 했습니다. 하나는 먹음으로써, 하나는 먹지 않음으로써 인간이 죄를 지을 수 있는 단계에서 죄를 지을 수 없는 단계로,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단계에서 타락할 수 없는 단계로 성숙하고, 영생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두 나무 사이에서 인간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먹지 말라”는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에덴동산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만일 생명나무의 실과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상태에서 먹으면 생명력이 악을 향하여 강화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동산에서 쫓아냄으로써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차단하신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한 인간은

점점 그 생명이 소멸되는 유한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결국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고,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첫째 아담 안에서 타락해서 죽음에 이르렀던 모든 인류가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린양 되신 그분의 죽음으로 인하여 온전한 구원과 회복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명나무 취할 권리를 가진 사람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는 타락으로 잃어버렸던 에덴동산을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2장에서 인간이 잃어버렸던 낙원이 회복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에덴동산에는 있었지만,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없는 게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금지되었던 생명나무는 다시 나타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사라진 이유는 시험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3절에 “저주가 없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주가 없다는 것은 모든 인생의 고통과 불안, 아픔의 원인이 되었던 죄와 불순종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저주가 없는 동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나타난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시작되어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동산은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이루어진 낙원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모든 경배가 드려지고, 그분이 그 보좌에서 통치하시며, 심판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양이 앉으신 보좌가 〈요한계시록〉의 중심입니다. 이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통치의 보좌이며, 심판의 보좌이며,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보좌입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동산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하는 동산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그 동산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나무를 취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14절). ‘자기의 옷을 빼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어린양을 따르는 이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

생명나무를 취하지 못하고, 거룩한 도성에서 쫓겨나는 이들도 있습니다(19절). 영원한 죽음입니다. 생명나무를 취할 권리를 가지고 그 도성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행하는 일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깁니다(계 22:3). 그 이전에는 누구도 하나님 보좌 앞으로 직접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린양의 보좌 앞에 누구든지 직접 나아가 섬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섬김’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이고, 또 하나는 활동입니다.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 보좌 앞에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한 활동이 있습니다. 천국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노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에는 활동이 있습니다. 섬김이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일할수록 기쁨이요, 은혜요, 감사요, 찬양입니다.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천국에서는 예배와 일이 분리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린다

둘째,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이전에는 결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 대면하게 됩니다(4절).

셋째,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게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이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5절).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통치에 참여합니다. 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와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이 전혀 충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인간의 자유가 조화를 이루는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동산을 요한이 보고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을 보여준 천사에게 경배를 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그렇게 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과 함께 섬기는 종된 자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야단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자 죄성입니다. 초자연적인 기적과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만 경배해야 하는데, 그 통로가 된 존재를 자꾸 경배하려 합니다. 요한에게는 천사가 그 대상이었습니다. 예배는 오직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인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속히 다시 오십니다.”

마지막 교훈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속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7절).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내가 줄 상급이 내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 줄 것이다.’”(12절).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20절).

우리 편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지만, 예수님 편에서는 ‘내가 다시 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속히 오신다고 했습니다. 긴급성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조급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급한 삶은 도리어 긴급하고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긴급성을 깨달으려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주목해야 합니다. 헬라어에서 시간을 의미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는 성취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조급한 인생을 살면 크로노스에 휩쓸려갑니다. 그러나 ‘카이로스(하나님의 시간)’를 바라보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 인생에 반드시 있어야 될 카이로스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사건입니다. 카이로스가 우리 삶의 목표가 될 때 크로노스에 휩쓸리지 않고, 조급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지 못하면 반드시 이 시대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긴급성과 함께 또 하나의 긴급성이 있습니다. ‘오라’는 초청입니다(17절). 그리스도께 대해서는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소망으로 그분의 오심을 바라며 소망하고, 영혼들을 향해서는 “목마른 자들이여 오십시오”라는 초청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소망하는 영혼은 반드시 생명수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신랑 되신 그분을 맞이해야 할 영혼들을 향해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니 당신들도 속히 오십시오”라고 초청하는 선교의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과 마지막 동산에 함께 들어가야 할 영혼들을 향한 구원의 초청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순종하며 사는 이 시대의 삶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믿음

간증이 있는 삶을 사는 것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가치관을 말하는 것일까? 매주 <온누리신문>에 기재되는 글들을 찾아서 읽을 때마다 언젠가 나에게도 기고할 기회가 생긴다면 어떤 메시지를 담는 게 좋을지 생각해 봤다. 내가 피조물임을 고백하는 신앙, 원죄를 이해하는 신학적 지식, 분노를 이겨내는 삶, 헌신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순종, 매일 같이 거듭나는 영성 등 많은 이야기가 머리에 꽂 차면서 한 줄씩 자국을 남겼는데, 결국 한마디로 표현하면 ‘삶 속에 간증이 쌓여가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기고할 기회가 생겨 나의 간증 이야기를 써보려고 했는데 부끄럽게도 장로가 되어 바쁘지만 한 사역을 외에 마땅하게 쏟아낼 게 없었다. 그래서 몇 해 전, 나와 일대 일제자양육 동반자로 만나서 함께 울고 웃으며 양육했던 형제의 간증을 떠올리며 그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가치관을 찾아보려고 한다.

간증의 주인공이 태어날 때 원불교 교리에 심취한 어머니가 법명을 받아 이름을 지어 주셨다. 청년 때는 원불교 학생회장을 역임할 정도로 불심이 컸다. 한국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인 그 형제는 KOICA 소속으로 군 복무 대신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베트남에 감독으로 파견을 갔다. 외국인이 거주해 본 적 없는 베트남의 오지 중 오지인 한 도시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한국인 선교사를 만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 어떻게 선교사님을 만났고, 어떻게 그 오지에 태

권도 도장을 세웠고 감독 생활을 했는지 그의 간증에는 은혜가 차고 넘친다. 하지만 지금 전하려는 간증에 비하면 서막에 불과하다.

2007년 7월 무더운 여름, 당시 한국 국기원 소속 태권도 시범단은 간증의 주인공을 포함해서 20명의 단원과 단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 ‘태권도 외교’를 목적으로 방문했다. 공식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사마르칸트 사막의 유적지를 탐방하려고 제법 신식 버스로 관광을 갔다. 그런데 오가는 길에 버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한 번씩 멈추고 다시 출발하기를 반복했다. 급기야 에어컨이 꺼지고 멀리 가지 못한 채 차량 이동이 거의 없는 사막 한가운데 멈춰 섰다. 처음에는 곧 다시 출발할 것을 기대하며 일행들이 차 안에서 먹고 마시며 수다를 떨었는데, 한 시간이 지나고, 두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했다.

살이 익을 정도의 뜨거운 태양이 이글거리던 오후 2시경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땀통 더위에 지쳐가는 단원들이 버스 밖에 나와 버스 옆에 드리운 그림자에 모여 “더워 죽을 것 같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었다. 일정 내내 주인공을 ‘예수쟁이’라고 놀리던 선배 한 명이 “아이 예수쟁이, 차 좀 고쳐 달라고 기도해봐”라고 외쳤다. 그 뒤로 이미 정신이 혼미해진 동료들의 갈망 어린 눈빛이 꽃히면서 이구동성 아우성쳤다. 그 순간 주인공은 아직 1년밖에 안 되는 믿음이었음에도 마른하늘 아래 별을 짓는 노아를 조롱하는 무리와 이스라엘

의 하나님을 조롱하던 골리앗과 히스기야 백성과 그들의 하나님을 조롱하던 산헤립이 떠올랐다. 또 물로 심판하시고, 다윗의 돌팔매로 골리앗을 죽게 하시고, 천사 한 명으로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멸하셨던 하나님이 떠올랐다. 성큼성큼 걸어가 버스 엔진 룸에 손을 얹고 선포했다.

“주여 저는 무시당해도, 조롱당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차마 볼 수 없습니다. 주여! 이들에게 주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순간 시동이 걸렸다. 기도하던 주인공도, 그 모습을 미친놈 보듯 지켜보던 동료들도, 그리고 차 안에서 어찌할 줄 모르고 당황하던 운전사와 관광 안내원도 놀랐다. 5시간에 걸쳐 돌아오는 차 안이 조용했고, 아무도 수다를 떨 엄두를 내지 못했다. 숙소로 오는 내내 주인공은 다시 시동이 꺼지지 않게 해달라며 온몸이 축축하게 젖도록 기도했다. 숙소 도착 후 단장이 2주 동안의 시범단 일정에 대한 성과를 정리하고, 다음 날 아침 귀국 길 안내를 위하여 자신의 방으로 모두 모이도록 했다. 안내를 마치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무사히 있는 것은 의성이 덕분이다. 모두 고마운 마음을 갖도록 해라. 나는 아직 종교가 없지만, 나중에 종교를 갖는다면 의성이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의성이, 그때 너에게 연락해도 되지?”

간증 현장에 있던 관광 가이드와 현지 운전사, 단장과 단원 중에 몇 명이 복음의 자녀가

되었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들 중에 누군가는 큰 울림이 있는 또 하나의 간증을 쓰고 있을지도 모른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단순한 신념의 문제가 아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세계관의 흔적이 간증으로 쌓여가는 삶을 의미한다. 주인공의 이야기가 왜 나의 심령을 흔들었던 것일까? 그 간증이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중요한 신앙의 기본요소를 말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삶의 주인은 창피와 멸시를 당하는 내가 아니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다. 또한 “하나님께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말씀을 따라 상황을 따지지 않고 멈춰 선 버스 엔진 앞으로 걸어가 기도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통로로 살면서 또 한 명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열매를 맺는다.

고등부 2학년과 3학년 때 ‘전도왕’으로 칭찬받던 시절을 떠올려보았다. 내 삶이 힘들었던 때, 어두운 터널 안에서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몸서리칠 때 나의 손을 꼭 잡고 위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만의 간증들을 조용히 꺼내 본다. 인생의 후반전을 뛰는 나에게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간증들이 한층, 한 겹 더 쌓이기를 소망한다.



한영우 장로
(Ponint5공동체 대표장로)

특별기고

종교의 상실은 도덕적 악몽이다

이스라엘 출신 학자 ‘유발 노아 하라리’는 세계 각지의 콘퍼런스에서 인기 있는 연사이며, 수천만 부 이상 판매된 여러 저서의 저자다. 그는 극단적으로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인간이 특별하거나 독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가까운 미래에 과학이 자연을 능가해 인간 발전의 주된 동력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 따라서 그는 인간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생명공학을 통해 자신을 ‘해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철학적 전제들이 지니는 가장 기본적인 함의조차 간과한다. 그는 도덕의 어떤 근거도 부정하면서 동시에 억압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최근 게시된 영상에서 그는 찰스 다윈을 ‘성적 해방의 예언자’라고 언급했다. 물론 그것이 다윈의 본래 의도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생물학에는 목적이 없다는 점을 보임으로써 오늘날 ‘LGBTQ 커뮤니티’로 불리는 이들에게 신의 뜻을 거스른다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주었다고 말

한다. 그의 주장은 한 측면에서 옳다. 인간과 그들의 행동에 대해 구체적인 의도를 가진 창조주가 없다면, 사람들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무방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글을 올렸다.

“자연에는 어떤 목적도 없고, 존재하는 어떤 것도 부자연스럽지 않다. 국제 동성애·양성에 트랜스젠더 혐오 반대의 날을 축하한다.”

그러나 데릭 리슈마워(Derek Rishmawy)는 이에 다음과 같이 응답했다.

“자명한 사실을 지적하자면, 만약 신도 없고, 목적론도 없으며, 인간이나 성행위에 내재된 형상이나 존엄성도 없다면, 아무것도 부자연스럽지 않고 모두 허용된다는 말처럼, 그런 행위에 대한 편견이나 박해 또한 부당하다고 말할 근거도 없다.”

하라리가 간과한 점은 이것이다. 인간에게 목적이 없고, 그가 말했듯 “존재하는 어떤 것도 부자연스럽지 않다”면 왜 성적 이탈은 정당화되면서 그것에 대한 편견이나 박해는 잘못된 것으로 간주하는가? 그러한 도덕적 판단

은 그가 거부하는 성 윤리만큼이나 무의미해진다. 악이라는 개념 자체를 제거함으로써 무엇이 악인지조차 말할 수 없게 된다.

프랜시스 웨퍼는 신이 없는 세상은 공허하다고 주장했다. 물리적 세계가 스스로 창조할 수 없다는 점 때문만은 아니다. 신이 없다면,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들(아름다움, 지식, 진리)도 무의미해진다. 그런 우주에서는 노을은 아름답지 않고, 사실은 알 수 없으며, 우리가 느끼는 사랑은 단지 화학작용의 환상에 불과하다. 무신론자들은 종종 “만약 당신이 착하게 살기 위해 신이나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필요하다면, 당신은 본래 착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핵심을 놓친 말이다. 기독교인이 “신 없이는 도덕도 없다”고 말할 때 그것은 처벌이 없으면 선을 행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신이 없으면 ‘선’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라리와 같은 유물론자들이 인간을 단지 아원자 입자의 무작위적 상호작용으로 간주

할 때, 정의나 억압에 대한 모든 주장은 개인의 기호로 환원된다. 가장 끔찍한 범죄조차 단지 유감스럽고 불편한 일일 뿐 그 이상은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노예제, 홀로코스트, 굴라크(러시아 정치범 수용소), 역사상 모든 참상이 고등학생이 화학실에서 실험하다 화합물을 혼합한 것보다 도덕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모두가 단지 움직이는 물질일 뿐이다.

1887년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19세기 엘리트들이 꿈꾸던 신 없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경고했다.

“우리는 계속 추락하고 있지 않은가? 뒤로, 옆으로, 앞으로, 사방으로. 이제 위나 아래라는 개념조차 존재하는가? 우리는 끝없는 허무 속을 떠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신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를 잃는 게 아니다. 그것은 도덕을 잃는 것이다. 의미를 잃는 것이다. 결국, 인간성을 잃는 것이다.

/ 존 스톤스트리트, 티모시 D. 패짓

원문: breakpoint(20250624)

예수 따라, 성령 따라 국내 온누리교회 탐방 3. 양지온누리교회

선교 위해 태동했고, 선교 위해 기능한다!

양지온누리교회의 뿌리 깊은 선교 역사와 미래

올해는 온누리교회 창립 40주년이다. 온누리교회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따라 'Acts29 비전'을 써내려가고 있다. <온누리신문>에서 Acts29 비전이 완수되는 바로 그 현장을 찾아간다. '예수 따라, 성령 따라'를 주제로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와 협력 기관을 탐방하며 그 아름다운 현장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사역과 감동적인 이야기를 소개한다. 그 세 번째 여정은 '양지온누리교회'다. 박철웅 목사에게 양지온누리교회의 뿌리 깊은 선교 역사와 역할에 대해 들었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 양지온누리교회 담당 박철웅 목사.
▶ 양지온누리교회와 Acts29 비전빌리지 전경(왼쪽), 창립 13주년 기념 선교바자회(오른쪽).



정책을 수립하고 연구하는 '2000선교본부',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하는 '두란노해외선교회(TIM)'를 창립했다. 그리고 2010년, 온누리세계선교센터가 'Acts29 비전빌리지'로 다시 한번 도약했다.

2005년 말에는 온누리벤엘교회 모든 성도가 온누리교회 등록 성도로 전환했고, 2012년 6월 온누리벤엘교회가 '양지온누리교회'로 거듭나며 온누리교회 10번째 캠퍼스로 탄생했다. 이상규 목사에 이어 황종연 목사, 김영배 목사, 도육환 목사가 양지온누리교회를 섬겼다. 2022년부터는 박철웅 목사가 사역하고 있다.

선교지에 있지 않지만, 선교지를 경험하는 교회

양지온누리교회가 Acts29 비전빌리지 안에 위치하면서 선교적 정체성이 더욱 뚜렷해졌다. 선교사의 안식과 회복, 선교사 후보자들의 훈련, 그리고 성도들의 선교적 삶이 교차하면서 '선교지에 있지 않지만, 선교지를 경험하는 교회'라는 독특한 특징을 형성했다. 박철웅 목사는 양지온누리교회가 가진 독특한 특징을 다음같이 설명했다.

"양지온누리교회는 Acts29 비전빌리지 안에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선교 훈련을 받는 후보자들, 안식년을 보내거나 잠시 본부사역을 하는 선교사들과 함께 머물게 됩니다. 선교사들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성도들이 선교사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선교 현장을 생생하게 접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양지온누리교회가 가진 가장 큰 강점이자 특색입니다.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양지온누리교회가 지닌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 둘러싸인 교회'라는 점이다. 김사무엘홀에서 예배드리고 나서 예배당 커튼이 올라가면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움을 환기해 준다. 은퇴 선교사와 안식 선교사들의 쉼과 회복을 위한 자연 쉼터를 마련하고자 했던故 하용조 목사의 뜻과도 맞닿아 있다.

날마다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교회

양지온누리교회는 선교와 함께 태동한 교회답게 그 역할을 매우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다. 한 예로 '온누리나눔사역팀'이 있다. 온누리나눔사역팀에서는 성도들이 기증한 물품을 재판매해서 얻은 수익금으로 선교지 유치원에 놀이터를 설치하거나 선교사들의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 구매 등을 돕고 있다. 해외 아웃리치 같은 선교 기반 사역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

또한 양지온누리교회 성도들은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모두가 선교적 삶을 살아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외진 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다음세대가 접근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양지온누리교회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차세대 사역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성경학습 프로그램 '어와나(Awana)'다.

어와나(Awana)는 놀이와 게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말씀을 배우고, 협동심을 키우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생까지 연령별로 구성되어 있다. 젊은 부부를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수요오전여성예배', '마더와이즈' 등을 통해서 젊은 부부들과 그들의 자녀가 양지온누리교회에서 자리 잡고

다음세대가 신앙 안에서 성장하도록 터전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이 양지온누리교회가 '경험하는 교회'에 머무르지 않고 날마다 한 걸음 더 성장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그들이 꿈꾸는 '선교적 미래'

무엇보다 양지온누리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특별하고 귀하게 여긴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귀하고, '일당백'이기 때문이다. 650명 규모의 캠퍼스 교회가 다양한 사역과 프로그램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양지온누리교회 성도들이 1인 2역, 3역을 감당하기 때문이다. 박철웅 목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헌신하는 양지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양지온누리교회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헌신을 선교적 미래를 꿈꾸고 이뤄가는 소중한 발걸음으로 여긴다.

양지온누리교회가 꿈꾸는 선교적 미래는 명확하다. 양지온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선교적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보내는 선교사', '보냄 받은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고 있다.

"양지온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선교훈련원에서는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시안기도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양지온누리교회의 더 많은 성도가 선교의 열정으로 시안기도모임에 참여해서 온누리 선교를 위한 기도가 다시 한번 뜨겁게 부흥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사람들

‘가정’이라는 천국을 선물하는 사람들!

고아를 섬기는 방법 ... 입양과 위탁, 결연과 지원, 기도

온누리교회 올해 표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는 절박함의 표현이다. 이와 짝을 이루는 표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준비된 신부가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준비된 신부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 성품을 닮은 사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다. <온누리신문>에서 바로 그들,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사람들을 소개한다. 그 여덟 번째 주인공은 고아들에게 ‘가정’이라는 천국을 선물하며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사회선교본부 소속 고아사역팀 ‘제이흠사역팀(이하 제이흠)’과 ‘울타리사역팀(이하 울타리)’이다. 현재 제이흠과 울타리를 섬기고 있는 오창화 집사(울타리사역팀장)와 최순영 자매(입양인 권익활동가)를 만났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입양’ 해 주세요. 입양할 수 없다면 ‘가정위탁’ 해 주세요. 가정위탁할 수 없다면 ‘보육원 아동 결연’ 해 주세요. 보육원 아동과 결연할 수 없다면 ‘자립준비청년과 동행’ 해 주세요. 자립준비청년의 멘토가 되어줄 수 없다면 ‘재정후원’ 해 주세요. 재정으로 후원할 수 없다면 ‘고아의 목소리’가 되어주세요.”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본부 고아사역팀 ‘제이흠’(입양위탁가정공동체)과 ‘울타리’(보육원 아동 결연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역팀)의 슬로건이다. 이 문장에는 고아에게 꼭 필요한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입양, 위탁, 결연, 지원(멘토링, 후원), 기도가 그것인데, 누구나 자신의 자리에서 고아를 품을 수 있다는 선언이 기도 하다.

오창화 집사는 “고아를 돌보는 일은 사역이 아니라 삶”이라고 고백한다. 그의 가정은 아홉 명의 자녀(입양 2명, 위탁 3명 포함)를 양육했다. 그에게 고아사역이 삶인 이유는 고아사역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며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가장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복음 실천’이기 때문이다.

아이 하나, 천국 하나

“하온이는 온유야.”

어느 날 아내 유금지 권사의 말이 오창화 집사의 마음을 뚫고 들어왔다. 하온이는 오창화 집사 가정에서 위탁 중인 아이다. 현재 16개월인 하온이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움직이며 모든 것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 호기심 많고 에너지 넘치는 아이다. 힘에 부칠 만큼 말쑤꾸러기인 하온이를 양육하며 지친 마음을 다독이듯 유금지 권사가 말했다.

“온유가 우리 품에서 자라고 있다면 꼭 하온이 같았을 거야.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간 온유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하온이를 보내주시길 기도.”

오창화 집사 가정은 생물학적 넷째 자녀 온유를 천국으로 보내고 입양을 시작했다. 다섯째, 여섯째 아이를 입양하고, 베이비박스 아기의 입양을 위한 위탁도 했다. 그렇게 만난 아홉째 아들 하온이를 하나님께서 온유를 대신해

서 허락하셨다는 고백이다. 오창화 집사와 유금지 권사에게 하온이는 그냥 ‘내 자식’이다.

하온이와 같은 아이들을 품어줄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에서 매년 2,400여 명의 아이들이 보육원에 입소한다. 그 중에서 위탁 가정에 연결되는 아이는 100명도 채 안 된다. 나머지 아이들은 보육원에서 자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보육원에서는 한 명의 보호사가 감당해야 할 아이가 너무 많아서 애정 어린 돌봄이 매우 어렵다. 아이에게 젖병을 물리고, 기저귀를 가는 것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아이 한 명 한 명을 포옹하고, 눈 맞춤을 기대하기가 힘들다. 그 결핍이 결국 상처로 남는다. 원가정에서 분리된 아픔, 애착 형성 시기에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랑은 아이의 신체, 정서, 인지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해답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인들이 고아를 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아이 하나를 품으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아이가 한 명씩 늘어난다.

입양은 ‘사랑이 이기는 이야기’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고자 했던 어느 부부가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꿨다. 1999년 12월, 매서운 겨울바람이 부는 어느 날이었다. 인천의 한 파출소 주차장에 한 아이가 누워 있었다. 얼굴과 몸이 보랏빛으로 얼어가던 아기는 근처 산부인과로 급히 옮겨졌다. 그 병원에서 행정 업무를 맡고 있던 사무장이 아이를 안아 들고 우유를 먹였다.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됐다. 그 아이를 입양하기로 한 것이다. 그 작은 아이에게 가족이 생겼다. 추운 겨울과 같던 아이의 인생에 따스한 봄볕이 들었다.

그 작은 아이가 바로 입양인 권익활동가로 활동 중인 최순영 자매다. 올해 스물다섯 살이 된 최순영 자매는 전국을 다니며 입양을 주는 행복과 회복을 간증하고 있다. 지난 6월 15일(일) 제이흠과 울타리에서 개최한 ‘입양·위탁·결연·지원세미나’에서도 강연했다.

최순영 자매의 부모님은 입양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여겼다. 최순영 자매 이후로도 네 명의 아이를 가슴으로 낳았고, 그 덕에 최순영



오창화 집사와 그의 아홉째 아들 하온이(왼쪽), 입양인 권익활동가 최순영 자매(오른쪽).

자매는 다섯 남매의 장녀가 되었다.

“부모님이 항상 저희에게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선물이야’라고 말해주셨어요. 저희 다섯 남매는 서로 닮진 않았지만,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누구보다 단단하게 엮이며 자랐어요.”

최순영 자매의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입양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늘 “너희를 낳아주신 분이 있지만, 키울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우리와 가족이 된 거야.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가족으로 만나게 해주신 거야”라고 말씀하셨다. 그 덕분에 최순영 자매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 당당할 수 있었다.

입양 가족을 향한 사람들의 무지와 편견이 크고 작은 생채기를 내기도 했다. “넌 피도 안 섞였으니까 진짜 가족 아니잖아?”, “입양된 애들은 크고 나면 제 부모 찾아서 다 떠나” 등의 말을 들으면서 혼자 숨죽여 우는 날도 많았다. 그런 날이면 최순영 자매는 다시 부모님 품으로 갔다. 그러면 부모님이 그 마음을 알아채고 다시 사랑을 채워줬다. 가족과 함께 먹는 따뜻한 밥 한 그릇, 함께 걷는 산책 한 번으로도 생채기 난 마음이 다시 살아났다.

“제가 입양인으로서 정체성에 혼란이 올 때마다 가족의 사랑은 저에게 ‘사랑받아 마땅한 아이’라고 말해주었어요. 버려진 게 아니라 지켜진 것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깨닫게 해주었어요. 입양은 ‘사랑이 이기는 이야기’예요. 그 어떤 상처도 결국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에요. 많은 분이 이 귀한 일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정은 ‘작은 천국’

흔히 가정을 ‘작은 천국’이라고 부른다. 가정이야말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아주



귀한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고아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그 일을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본부 ‘제이흠’과 ‘울타리’에서 하고 있다.

제이흠은 입양, 위탁 가정들이 함께 교제하는 공동체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기에배를 드리며 따뜻한 교제를 나누고, 더 많은 교회와 가정, 성도들이 입양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홍보 및 연합 사역을 하고 있다.

울타리는 보육원 아동과 일대일 가정결연하는 ‘열린울타리’, 자립준비청년들을 돕는 ‘푸른울타리’ 사역을 하고 있다. 매달 보육원 아동 및 자립준비청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일대일 결연, 학습 도우미, 장학금 지원, 반찬 만들기, 긴급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제이흠과 울타리에서 고아들에게 가정을 선물하는 다섯 가지 방법을 소개했다. 먼저 ‘입양’이다. 입양은 한 아이에게 평생 가정을 선물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다. 둘째, ‘가정위탁’이다. 가정위탁은 친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있는 아이를 일정 기간 돌보며, 아이가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사랑으로 품는 일이다. 셋째, ‘보육원 아동 결연’이다. 보육원에 있는 아동과 일대일로 결연을 맺고, 한 달에 한 번 가정으로 초대하거나 식사 및 나들이를 함께 하며 가정의 따뜻함을 알게 해주고, 어려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다. 넷째, ‘자립준비청년 지원’이다. 보육원을 퇴소한 청년들과 멘토-멘티로 연결되어 ‘좋은 어른’, ‘따뜻한 가정’을 경험하게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아버임을 전하는 사역이다. 다섯째, ‘기도’다. 직접적인 돌봄이 어려운 성도들은 고아들을 위한 기도로 고아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

문의: 02-3215-3434

후원: 하나은행 573-910020-36505

(온누리교회 온누리울타리)

성도가 함께하는 ‘디지털 쿠르드선교’

온누리교회와 쿠르드족의 연합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



전영수 장로
(이천선교본부 중동융
합선교팀장)

쿠르드족은 온누리교회가 입양한 종족이다. 그들은 주로 튀르키예, 이라크, 시리아, 이란 등지에 흩어져 살고 있다. 온누리교회는 쿠르드족과 2017년부터 난민선교를 계기로 연결된

이후 현재까지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다. 온누리교회의 쿠르드선교는 주로 쿠르드 개종자로 구성된 난민교회와 협력하는 형태로 전개됐다. 온누리교회가 그들에게 융합선교 콘텐츠를 보급한 결과, QT가 뿌리내렸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로 재생산 보급도 이루어지고 있다. 일대일제자양육이 그들의 새가족 양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고, 아버지학교와 어머니학교도 활발하게 보급되어 그들의 가정사역 전도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쿠르드 사람들과 복음

쿠르드 사람들은 시리아 전쟁 중에 다른 어떤 민족보다 복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많은 개종자를 얻었다. 이뿐만 아니라 개종자들이 다양한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전도자로 거듭나 전도를 아주 열심히 한다. 그들은 쿠르드가 쿠르드를 전도해 수많은 동족을 복음화시켰고, 더 나아가 디지털전도를 통해 쿠르드가 열방(범아랍어권)을 전도하는 재생산의 위업을 이루고 있다.

특히 디지털전도의 열매가 대단하다. 올해 4월 튀르키예에 있는 쿠르드 난민 디지털전도팀이 북아프리카 아랍권 국가에 디지털 광고를 했는데, 반응한 사람 중에서 6명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고, 91명이 성경을 받았다. 우리는 쿠르드를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심을 믿고, 쿠르드와 연결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하지만 쿠르드의 내면에는 아픔이 많다. 그들이 나라 없이 수천 년을 지내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근래에는 시리아 전쟁 중에 IS로부터 가장 많은 학살을 당한 아픔이 있다. 사회적으로도 그들은 다른 민족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많이 받고 있다. 특히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가문이나 그들 사회로부터 심한 핍박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 쿠르드를 우리가 품어주고, 응원한다면 그들이 얼마나 힘이 날까? 우리가 그들을 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했다고 칭찬하시지 않을까?

쿠르드를 위한 네 가지 기도

쿠르드는 우리를 필요로 한다. 그 요청에 응해야 한다.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첫째, 쿠르드족을 위한 기도다. 쿠르드 교회 성도들은 상당수가 난민으로서 피란지에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 그들의 가장 큰 고통은 불안이다. 성인들은 피란지에서 취업 기회를 얻기 어렵고, 그나마 임시 취업이라도 하면 고용과 해고의 반복으로 항상 불안에 떨며 살아야 한다. 또 피란지에서 난민 생활을 하다 보니 멸시와 천대는 기본이고, 육체적인 위협도 종종 느껴며 살고 있다. 더 현실적인 고통은 그들은 의료보험이 없고, 치료비가 없어서 아파도 병원에 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다른 고통은 그들에게 미래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젊은이나 청소년들은 종일 산업현장에서 중노동에 시달리며 가족들을 부양하는 게 삶의 전부이고, 미래를 꿈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고난들을 이겨내도록 기도해야 한다. 희망을 모르는 쿠르드 미래세대들이 희망을 품고 미래를 설계하도록 품

다. 그들은 가족들로부터 핍박은 기본이고, 현지 사회에서 사역하는 과정도 무척 어렵다. 일부 전도자들은 가문의 연장자들에게 모진 매를 맞으면서도 전도한다. 이 힘든 과정을 통해 많은 개종자가 나와서 그 보람으로 사역하고 있지만, 사실 많이 지쳐 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이 그들에게 기도와 함께 따뜻한 격려 한 마디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들이 힘을 내서 더 열심히 추수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넷째, 디지털 광고에 참여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현재 온누리교회 쿠르드 디지털전도팀은 두 개가 있는데, 모두 온누리교회 박경손 선교사가 쿠르드 형제들과 함께 설립했다. 하나는 레바논에 있는 KUDE팀이고, 다른 하나는 튀르키예에 있는 PADE팀이다. 우리가 이들 쿠르드 디지털전도팀을 쉽게 돕는 방법은 그들이 만든 복음 광고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그들 계정을 ‘팔로우’하는 것이다. 그것이 쿠르드 디지털전도팀의 광고 중단이나 계정 폐쇄를 막는 아주 효과적인

전략이 된다. 그 발견이 우리 신앙에 청량제 역할을 한다.

셋째, 우리와 협력해서 전도할 쿠르드족 성도들이 필요하다. 해외 선교를 할 때 돌파해야 할 어려움이 많다. 전도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동족이 동족을 전도하는 것이다. 지금 쿠르드 사람들은 동족에게 전도를 잘할 뿐만 아니라 열방의 아랍어권 사람들에게도 전도를 잘하고 있다. 온누리교회는 쿠르드족과 든든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가 기도와 응원으로 쿠르드 전도자들과 연합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전도팀 일원으로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성도들이 지금 당장 쿠르드 디지털전도팀에 참여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첫째, 카카오톡 기도방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천선교본부 중동융합선교팀에서는 쿠르드 선교를 위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만들었다. 앞으로 이곳에서 쿠르드 영혼들과 디지털전도팀을 위한 기도제목을 공유할 것이다.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자. 이 기도방에서는 기도 외에도 쿠르드 간증 영상을 유통하고, 쿠르드선교 활동도 안내할 것이다. 참여를 원하는 성도들은 하단 QR코드를 통해 들어오면 된다.

둘째, 온라인 합심기도에 참석하는 것이다. 쿠르드 디지털전도팀은 주 1회 온라인 합심기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도회에서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라와 있거나 새롭게 업데이트된 기도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할 것이다. 또 기도회에서 디지털광고 화면을 공유하며 ‘좋아요’를 누르고, 그 광고에 반응한 아랍어권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이 온라인 합심기도는 일주일에 한 번 우리의 기도 열정과 은혜를 소용돌이치게 만드는 귀한 용광로가 될 것이다.

셋째, 온라인 아웃리치에 참가하는 것이다. 앞으로 쿠르드 디지털전도팀은 몇 개의 쿠르드 교회와 교대로 온라인 아웃리치를 실시해 정기적 만남을 갖고자 한다. 온라인 아웃리치란 한국의 기도팀이 교회에 함께 모여 현지 쿠르드 교회와 영상통화로 연결하는 것이다. 온라인으로 만나 함께 현지어 찬양도 하고, 간증 영상도 나누며, 원격 질의응답도 할 예정이다. 실제 올해 2월 말,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에서 양재온누리교회에서 모여 레바논의 쿠르드 교회 온라인 아웃리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런 모델을 더 발전시켜 레바논, 튀르키예, 이라크 등지의 쿠르드 교회와 지속적인 온라인 아웃리치를 갖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온누리교회와 쿠르드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됨을 이루어갈 것이다.



쿠르드선교
채팅방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첫째, 카카오톡 기도방에 참여,
둘째, 온라인 합심기도에 참석,
셋째, 온라인 아웃리치에 참가하는 것이다.”

고 기도해야 한다.

둘째, 쿠르드가 디지털로 전도한 영혼들을 위한 기도다. 앞서 언급한대로 쿠르드 디지털전도팀이 올해 4월 한 달 동안 엄청난 전도의 열매를 거두었다. 그런데 열매 맺은 영혼들이 모두 쿠르드 디지털전도팀과 매우 먼 거리에 떨어져 살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전도팀이 영접자와 성경을 받은 사람들을 양육하거나 교회 연결 등 후속 케어를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현재는 디지털전도팀이 성경 앱을 원격으로 제공해서 대상자 스스로 성경을 읽게 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전도팀이 그들에게 지속적인 케어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일부는 다시 예전 종교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후속 케어가 어려운 대상자를 우리가 품어야 한다. 우리가 대상자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며 성령님이 그들의 영혼을 돌보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성령님의 감동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 또 성경을 받은 91명은 아직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나중에 2차 전도 과정에서 예수를 믿도록 기도해야 한다.

셋째, 쿠르드 교회 리더십을 위한 기도다. 쿠르드 교회 리더십은 대부분 개종자 출신이

방법이다. 실제 쿠르드 디지털전도팀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복음 광고를 올리면 타종교권의 반대자들이 운영사에 집요하게 항의해서 계정 폐쇄나 광고 중단 등이 종종 발생한다. 이때 ‘좋아요’와 ‘팔로우’ 숫자가 많으면 계정 폐쇄 빈도가 줄어든다.

쿠르드가 주는 세 가지 선물

쿠르드족에게만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다. 우리도 그들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첫째, 쿠르드 간증자들이 은혜와 감동을 주기 때문이다. 쿠르드 교회에는 개종자 성도들의 간증이 많다. 그들의 간증을 들으면 대부분 은혜와 감동을 받는다. 이 은혜와 감동이 우리가 쿠르드 디지털선교팀에 합류할 동기를 제공해 준다. 우리는 그들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들은 우리로부터 힘을 얻는다면 정말 아름다운 전후방의 연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다.

둘째, 그들의 열정이 우리의 신앙을 깨운다. 많은 쿠르드 개종자들은 성경 말씀 그대로를 믿는다. 이 믿음을 ‘순수한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또 개종자들 가운데 세례받는 성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들에게 세례란 목숨 걸고 예수를 믿겠다는 의사 표시다. 그들을 만나면 우리 신앙과 다른 점을 많이 발

맛있는 말씀 해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창 45:5)

매우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요셉에게 새어 나온 고백이다. 대가금을 비웃듯 넘실대는 공간을 틀어쥔 애굽의 총리가 자신 앞에서 찢절 매며 생명을 구결하는 이방의 객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고 밝히는 자리에서 말이다. 상인에게 팔아넘겨 시야에서 사라진 후에도 형들의 마음에서는 잊힐 수 없었던, 일평생 마음의 집이 되어버린 요셉의 음성이 거짓말처럼 되 살아난 것이다.

20여 년 만에 형들과 재회하면서 요셉이 복받쳐 오르는 마음을 다잡는 장면이 몇 번 등장한다.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에게 축복의 인사를 건네던 중 터져 나오는 울음을 붙잡고 그는 급히 안방으로 뛰어 들어가야 했다. 형들도 반가웠겠지만, 하나뿐인 친동생이 얼마나 보고 싶었으랴! 자신을 속 시원히 드러내지도 못한 채 마음을 눌러 감추기도 힘겨웠을 것이다.

이후 장면에서는 형들의 변화된 모습이 여실히 드러난다. 은잔을 훔친 대가로 노예가 될 거라는 총리의 말에 넷째 형 유다가 담대하고

절절하게 탄원하기 시작한다. 한 아이를 잃어버린 아버지가 자신들을 믿고 막내 베냐민을 애굽 길에 동행하도록 허락했는데, 그가 노예가 된다면 아버지에게는 죽기만큼 어려운 일일 거라고 말한다. 유다는 이어 자신이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 종이 되겠노라 간청한다. 동생이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못하면 아버지를 벨 낮이 없을 것이라는 형의 절규에 가까운 요청에 요셉은 간신히 참고 있던 마음을 주체하지 못한다. 모든 사람을 물러가게 한 뒤 드디어 그는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완전히 드러낸다. 큰 소리로 울며 내가 바로 요셉이라며 아버지가 살아계시냐고 형들에게 외친 것이다.

37장부터 시작된 요셉의 이야기에는 극적인 장면이 여럿 등장한다. 그만큼 형들에게 버림받고 이방으로 팔려 간 이후 요셉이 겪은 삶은 고난의 연속 그 자체였다.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담긴 채색옷이 벗겨지고 낯설고 시커먼 노예의 옷을 입어야 했다. 굵기야 죄수복을 입

고 감옥으로 내몰렸을 때는 인생의 문이 닫혀버린 듯한 절망을 느꼈을 것이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면서 눈물이 마르고, 희망도 사라지며, 소망을 노래할 수도 없었으리라!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읽을수록 느껴지는 것은 현실과는 정반대로 그의 중심이 이상하리만큼 평온해 보인다는 것이다. 형들 앞에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한 채 자신을 드러내면서 전하는 말속에서 그의 지난 20여 년 세월 동안 한결같이 관통해 온 신앙의 중심이 엿보인다. 그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형들에 대한 한 줌의 원망이나 아쉬움, 한탄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저 자신을 먼저 보내신 거라는 믿기 힘든 고백을 한다.

마치 다윗이 사울의 칼끝을 피해 숨어 지내던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난 것처럼, 요셉도 차디찬 인생의 밑바닥에서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 견고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일까! 깊은 수렁에 빠졌

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와 내가 족과 내 민족을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요셉을 상상해 본다. 이는 요셉의 일상이자, 살아갈 이유, 소망의 근거였을 것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날의 삶이 잔잔한 강 같든지,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함을 누리는 삶 아닐까? 그것이 무엇이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감사하며 그분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뤄지기를 기도

하며 걸어가는 것이다. 요셉이 형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 중심에 곰삭혀둔 신앙을 고백하듯이,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믿음의 중심이 날로 견고해지기를 소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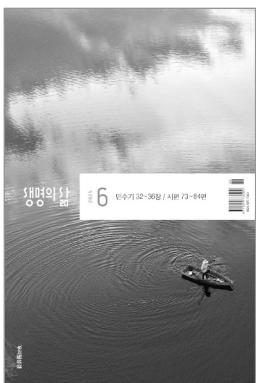
황문규 목사
(경기A공동체)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언약의 하나님을 향한 간구

6월 30일~7월 6일

〈시편〉 84:1~89:37



목상포인트 1:

〈시편〉 제3권(73~89편)은 다윗의 언약과 이스라엘의 언약적 실패, 그리고 민족의 패망 상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84~87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고통과 절망의 상황에서 기억할 분이 누

구인지, 진정한 회복을 가져다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묵상하자.

84편: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며 지은 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들은 항상 그분을 찬송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 있는 사람은 복되다. 〈시편〉 기자는 하루를 살더라도 성전에 거하며 성전 문지기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85편: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지은 시다. 〈시편〉 기자는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나 조국의 암담한 현실로 하나님의 도우

심을 또다시 구하며 부르짖는다. 〈시편〉 기자는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찬양한다.

86편: 포악한 자들에게 둘러싸인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다. 〈시편〉 기자는 궁핍한 상황에서 종일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는 위대하셔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분의 긍휼을 구한다. 교만하고 포악한 무리는 그의 영혼을 찾지만, 그는 하나님께 은총의 표적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기다린다.

87편: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노래하는 시다. 그 배경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과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던 때로 본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시온을 특별히 사랑하시며, 그곳이 열방의 중심이 될 것을 선포한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근원이시다.

목상포인트 2: ‘마스길’은 ‘교훈시’라는 의미다.

88편은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89편은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이다. 같은 마스길이지만, 시의 성격이 다르다. 88편은 개인적 차원, 89편은 국가적 차원의 시다. 개인의 절망 속에서 진솔히 부르짖는 기도, 민족의 패망 속에서 굳게 붙드는 하나님의 언약을 묵상하자.

88편: 〈시편〉에서 가장 슬프고 절망적인 시다. 〈시편〉 기자는 극심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주야로 부르짖으며 자신의 영혼

을 버리지 마시기를 간구한다. 소망이나 구원의 확신이 전혀 없는 이 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이다.

89편: 다윗 왕조의 멸망이라는 국가적 절망 속에서 드린 기도시다.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비교할 신이 없으며,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으셨고, 다윗 왕조가 영원하리라고 약속해 주셨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집(성전)을 너무나 사모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해요, 방패이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항상 그분과 그분의 집을 가까이하자. ▶암담한 현실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성도에게 있다. 가족 혹은 지체들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믿음으로 합심해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하자. ▶고난이 이중 삼중으로 겹칠 때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시편〉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묵상하자. ▶나의 기도가 절망과 한숨뿐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분 앞에 토해내는 나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심을 기억하자. ▶〈시편〉 기자는 민족이 겪는 어려움 가운데서 다윗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 주시고 그분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하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가족과 나라를 위하여

저는 C국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던 중 자녀의 한국 대학 진학을 계기로 C국 생활을 정리하고 20년 만에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발생한 아버지의 병으로 인해 한 달쯤 간병을 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님과 동생에게 예수님을 전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함께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순예배에 참석하며 아름답고 귀한 공동체와 교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내의 직장, 자녀의 학업에 기쁨 부으셔서 그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이 땅에서의 재정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가정이 하나 되며, 공동체를 섬기기에 적합한 처소와 직장을 잘 선택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눈부시게 발전한 한국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법이 만들어지는 사회 분위기를 마주하며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국에 부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크리스천이 깨닫고, 감사로 그분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 이성일 집사(서초A공동체)

Q&A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다 천국을 살아내려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교회 안에서도 다툼과 분쟁을 겪고 상처를 받는 걸까요?”

청년들에게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이다. 교회에 처음 정착한 이들, 또는 오래 섬기다가 지쳐 쉬고 있는 이들의 공통된 고백이기도 하다. 신앙인으로서 교회를 사랑하지만, 때때로 교회가 가장 힘든 곳이 되어버릴 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반응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세 가지 대답을 나누고자 한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동시에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이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상처 입은 인간들이 함께 살아간다. 성경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지만, 동시에 ‘연약함을 가진 자들’이라고 묘사한다. 베드로와 요한, 바울도 예외가 아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선교 동역자였던 바울과 바나바조차 큰 다툼을 겪는다. 서로를 믿고 사랑했던 두 사람이지만, 마

가 요한을 데려가는 문제를 두고 의견이 갈렸고, 결국 다른 길을 간다. 성령 충만했던 초대 교회조차 완전한 평안만 있었던 게 아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교회란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다.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함께 자라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 다툼이 생길 때, 그것은 교회가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필요한 자들의 공동체라는 증거일 수 있다.

둘째, 교회는 성장이 필요한 미성숙한 ‘자아’들이 부딪히는 현장이다

청년 사역을 하면서 가장 자주 접하는 관계의 갈등은 ‘다름’보다 ‘익숙함’에서 비롯된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려’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해왔는데 너는 왜 그렇게 안 해?’라는 충돌이 더 많다. 이는 세대를 넘어 교회 안에서 자주 일어나는 상황이다. 20대 청년의 언어와 50대 장년의 언어가 다르고, 기도 스타일이나 예배 문화, 심지어 옷차림도 때로는 갈등의 불씨가 된다.

우리는 신앙인이지만, 여전히 자아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완전한 성품을 얻는 게 아니다. 성령 안에서 조금씩 나를 내려놓고, 타인을 존중하고, 자기중심성을 다듬어가는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다. 교회는 바로 그 ‘성품 훈련소’다. 갈등이 없는 것이 성숙이 아니라, 갈등을 건강하게 해결하고,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는 게 성숙이다.

셋째, 상처와 갈등조차 하나님은 ‘성장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사실 굉장히 현실적인 고통을 전제한다. 예수님은 제자들 간에 갈등이 있을 것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용서하라”, “화목하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다.

교회에서 경험하는 갈등은 때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오히려 더 깊은 공동체성을 배우게 만든다. 문제는 다툼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다. 그 갈등을 통해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사랑을 선택하고 있는가’다. 어찌면 교회에서 겪는 상처는 우리가 ‘진짜 사랑’을 배울 기회일 수 있다. 누군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인내를 발휘할 기회를 주신다. 때론 그 상황과 감정이 힘들고 고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이끌어 주신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다. 하지만 천국을 살아내려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완벽하지 않지만, 함께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다시 일어나 서로를 붙드는 자리가 교회이다. 상처가 없으면 좋겠지만, 그 상처를 통해 함께 회복되기를 소망한다. 그 과정에서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최재윤 목사
(길청년부)

이슈(Issue) 바로보기!

인간의 신성을 짓밟는 물질주의

나는 직업상 다양한 사람을 만난다. 돈 꾸러 다니느라 정신없는 중소기업 사장님, 빚에 내몰려 파산을 앞둔 자영업자도 있다. 사람이 겪는 갖가지 시련 중에서 뼈가 시릴 정도로 힘든 게 ‘빚 독촉’이란 말을 가끔 듣는다. 사실 돈 없이 인간다움을 유지하는 건 쉽지 않다. 돈이라는 명제로부터 행복과 자유를 지키는 것은 상당히 절실한 과제다. 특히 하나님과의 생명력 있는 연결이 끊어졌다면 말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건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 없다.

요즘 한국은 돈의 가치를 극대화하다 못해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경향마저 도드라진다. 그야말로 돈을 숭배하는 사회로 달려가고 있다. 가치나 진리까지 압도하니 말이다. 심지어 한국인은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를 묻는 말에 ‘물질적 풍요’를 택했다. 그렇다. 돈이 많은 사람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는 존재’로 보인다. 사탄은 ‘돈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속삭인다.

다만, 성경은 ‘부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과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것’을 엄하게 질책하고,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경고한다. 돈의 숭배는 하나님과 이웃이란 가

장 고귀한 두 개의 관계를 망쳐놓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이웃을 멸시하게 만든다.

지금 유행하는 물질주의는 ‘인간을 무엇으로 보느냐’와 깊은 관련이 있다. 하나님은 인간을 ‘신의 형상’으로 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하신다. 한데 인간은 하나님의 요청을 거부하고, 인간의 신성을 최대한 배격해 왔다. 프로이트는 인간을 ‘복잡한 동물’로 낮추었고, 양심과 죄, 영혼과 같은 용어들을 구식으로 치부했다. 마르크스는 ‘물질적 조건이 인간의 의식과 행동을 결정한다’는 유물론을 주창했고, 다윈도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은 ‘시행착오를 거친 우연의 결과물’에 불과하다고 단언했다. 심지어 요즘엔 ‘인간과 동물 모두 평등한 사회로 전환하라’는 슬로건도 내건다. 사람이 동물과 차이가 없다는 진화론의 귀결이다. 급기야 트랜스 휴머니즘이란 이름으로 인간과 기계의 결합을 통한 신인류 탄생을 주장하기도 한다. 아이러니하다.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려 하시는데, 세상의 이론들 특히 사탄의 책략은 인간을 동물과 기계, 때론 동물보다 못한 잔인한 존재로 끌어내린다. 이 힘겨움이 인간을 바라보는 태도를 극단적으로 갈라놓는다.

인간을 ‘하나님과 이웃 사랑이라는 목표를 가진 신의 대리통치자’로 볼 건지,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 몸부림치는 자연의 일부’로 여길 건지 두 관점의 영적 전쟁이 지금도 치열하다.

때로 하나님은 돈의 숭배를 무너뜨리는 극단적 개입을 마다하지 않으신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의 스토리를 봐도 그렇다. 자기 아들들을 불 속에 넣어 인신 제사까지 드렸던 악한 왕의 대명사로 불렸던 므낫세가 말년에 극적으로 회심한다. 코에 고리를 꿰고 청동 사슬에 묶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게 계기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에 돌아온 므낫세는 바알과 아세라 바로 ‘성공과 번영의 우상’을 없애버린다. 므낫세를 권력과 부의 자리에 놔두지 않으시고 청동 사슬로 묶어버린 건 엄청난 사랑이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인간에 대한 열등한 관점이 물질주의를 조장하고, 물질주의는 인간의 신성을 짓밟는다는 점이다. 오로지 확실한 단기적 보상이 중요할 뿐, 희생과 책임마저 혐오스러운 단어로 치부하고, 나의 가치마저 돈으로 치환해 버린다. 기껏해야 돈과 성공에 도취한 삶이 인생이 최종 목적지다. 그러나 하나님 대신 돈을 선택하는 순간, 인간

의 영혼은 나락에 추락하고, 돈이 유일한 힘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 당장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문이 굳게 닫혀버린다.

그렇다면 돈을 추구하는 현대적 광기를 제어할 방법이 무엇인가? 인간에 대한 열등한 관점을 털어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급선무다. 나락에 추락한 인간 수준을 한껏 끌어올리고, 존재로 대우받는 존엄성을 회복하자. 그러면 돈을 포함한 모든 자원은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자명해진다. 다음에 필요한 건 ‘사람 나라 질서’와 ‘하나님 나라 질서’의 거대한 반전이다. 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주소를 옮기는 결단 말이다. 우리 모두 맘몬의 감옥을 부수고, 하나님과의 생명력 있는 연결로 들어가자. 하나님은 바로 여기 계시고, 천국의 삶은 지금 내 앞에 있다.



이은경 변호사
(OCC공동체,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사단법인 크레도 대표이사)

청년 창업가 모여라!

7월 25일까지 ‘어!벤처스’ 참가자 모집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2025 청년 벤처포럼 ‘어!벤처스’ (이하 ‘2025 어!벤처스’) 참가자를 모집한다. 7월 25일(금) 오후 6시까지 접수하면 된다. 7~8월 심사 및 선발, 9~11월 비즈니스 리더와의 멘토링, 11월 29일(토) 최종결선대회를 치른다. ‘2025 어!벤처스’ 지원 자격은 법인 설립 5년 미만의 혁신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비영리법인 가능)다. 팀의 핵심 멤버 1명은 기독교인이야 하고, 서류를 접수할 때 교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참가신청

은 ‘청년벤처포럼 어!벤처스’ 홈페이지(ventures.kr)에서 하면 된다. 어!벤처스에서 우승 기업에게는 공동주관기관인 ‘씨엔티테크’로부터 1억 원 상당의 투자유치 기회와 부상을 준다. 부상은 3천만 원 상당의 상금(그랑프리 1천만 원), ‘크리스천 CEO 리더십스쿨’ 전액 장학금 등이다. 그랑프리 1개 팀에게는 미국 탐방 기회를 제공한다. 문의: venture2impact@gmail.com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이주민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남양주 ‘마르페의료선교팀’ 창립감사예배

남양주온누리교회 마르페의료선교팀이 지난 6월 21일(토) 오후 3시 남양주 온누리M센터(이하 남양주 M센터)에서 창립감사예배를 드렸다. 마르페의료선교팀이 국제 의료 플랫폼 NGO ‘메디엑세스’에 준회원으로 허업된 것을 감사하는 예배였다. 남양주온누리교회 및 남양주M센터 성도, NGO 메디엑세스 리더십, 봉사자 등 약 4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대표기도, 환영 및 교제, 설교, 축사, 경과보고 등의 순서로 예배가 이어졌다. 예배 후에는 내과, 정형외과, 외과 전문의들이 의료사역을 했다. 인도, 방글라데시, 네팔 등지에서 온 이주민 93명이 진료를 받았다. 마르페의료선교팀은 경기 동북부 지역 이주민을 대상으로 치유와 회복을 위한 사역을 할 계획이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로스쿨생 위한 힐링콘서트

7월 5일 오전 11시 반포한강공원 채빛섬 애니버서리홀

로스쿨생을 위한 힐링콘서트 ‘Hidden Paradise’가 7월 5일(토) 오전 11시 반포한강공원 채빛섬 1층 애니버서리홀에서 열린다. 힐링콘서트에서는 박종길 목사가 설교하고, 공연, 법조인 선배들과의 식사, 토크쇼, 샌드아트, 메시지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참가신청은 QR 코드로 하면 된다.

문의는 카카오톡 채널 ‘로스쿨힐링콘서트’에서 하면 된다. 한편, 지난 6월 16일(월) 열린 범조인맞춤전도집회 ‘Justice For You’에서 세례를 신청했던 초청대상자 52명 중 5명이 6월 26일(일)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 주일예배에서 세례를 받았다. 

CGN 기독 다큐멘터리 영화 ‘무명(無名)’

6월 25일 롯데시네마 단독 개봉

CGN 기독 다큐멘터리 영화 ‘무명(無名)’이 6월 25일(수) 롯데시네마에서 단독 개봉했다. 전국 롯데시네마에서 하루 2회 상영한다. 교회에서 영화관을 단체 대관하면 러닝타임 90분 외에 30분 추가 시간을 제공한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영화로 드리는 예배’를 할 수 있다.

CGN 기독 다큐멘터리 영화 ‘무명(無名)’은 지난 2017년 개봉한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이후 8년 만에 선보이는 장편 다큐멘터리이다. 일제강점기, 조선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두 선교사의 이야기를 담았다. 문의: 02-3275-9303, 9304 / 박지혜 기자

‘2025 달려라풍당’ 후원 모금 종료

성도 436명 4,700여만 원 후원

2025 행복한 가정 레이스 ‘달려라풍당’ (이하 2025 달려라풍당) 후원금 모금이 종료됐다. 성도 436명이 4,700여만 원 (47,964,109원)을 후원했다. 달려라풍당 후원금은 전액 행복한 가정과 건강한 차세대대를 위한 기독 OTT ‘풍당’ 콘텐츠 제작 및 라이선싱에 사용한다.

2025 달려라풍당은 지난 5월 10일(토)부터 24일(토)까지 이어졌다. 성도 3,424명이 참가했다. 지금까지 달려라풍당 후원금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은 ‘갯툰’, ‘고고바이블’, ‘우리 몸으로 풍당!’, ‘바이블북’ 등이 있다. 문의: 02-796-9800

본부 178기 두란노 아버지학교 참가자 모집

7월 6일부터 8월 23일까지

본부 178기 두란노아버지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7월 6일부터 8월 23일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서빙고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된다. 참신청은 7월 2일(수)까지 두란노아버지학교 홈페이지(www.father.or.kr)나 아이스쿨(isc.hooli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2만 원. 두란노아버지학교에서는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의 사명’, ‘아버지와 가정’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10-9023-5400 / 박지혜 기자

14기 갈렙선교학교 참가자 모집

7월 6일부터 8월 30일까지

14기 갈렙선교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7월 6일부터 8월 30일까지 영상 강의와 매주 토요일 온라인 조모임이 진행된다. 14기 갈렙선교학교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 ‘미션 헬퍼십’, ‘갈렙의 비전’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3주 차에는 선교지 탐방, 7주 차에는 조별 사역지 탐방을 한다. 참가신청은 7월 8일(화)까지 아이스쿨(isc.hooli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수료하면 2학점을 받을 수 있다. 회비는 3만 원. 문의: 010-9930-1398 계좌번호: 하나은행 573-910019-79305 (온누리교회(갈렙선교)) / 박지혜 기자

CGN ‘선교마블, 기도 탐험대’ 시즌2

매주 수요일 업로드, 7월 13일까지 시청자 이벤트

CGN이 어린이 선교 콘텐츠 ‘선교마블, 기도 탐험대 시즌2’ 1편을 지난 6월 25일(수) 공개했다. 매주 수요일 자정 새로운 에피소드 한 편씩 총 10편을 공개할 예정이다. 기독 OTT ‘풍당’에서 시청할 수 있다. 선교마블, 기도 탐험대 시즌2 론칭 기념 시청자 이벤트도 한다. 선착순

300명에게 ‘선교마블 보드게임’을 보내준다. 기독 OTT ‘풍당’에서 선교마블, 기도 탐험대 시즌2를 시청하고 댓글에 감상평을 적은 다음 캡처한 이미지와 실제 시청 중인 모습이 담긴 사진을 구글폼(CGN 홈페이지 참고)에 7월 13일까지 올리면 된다. 문의: 02-796-9800

NGO 더멋진세상, 남수단 보건교육 및 주민 전도

NGO 더멋진세상이 남수단 캐세리 장로교회에서 마을 주민 220명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콜레라, 말라리아 감염 원인과 예방법 등을 교육했다. 보건교육 참가자

를 대상으로 주민 전도도 했다. 피티야 목사(남수단 캐세리 장로교회)는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보건 지식과 함께 예수님을 알릴 수 있어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6월 세레자

■서빙고	이도진 240621	문창섭 840715	장태욱 황다슬	윤유현 박민정
김다솔 880507	이두란 이은경	송재경 830219	장진우 211206	
이창환 790813	이은호 201020	이세령 610217	장태욱 황다슬	J4U
임왕수 690729	이창환 백선희	이옥선 560803	주하람 240618	오수인 900714
전지윤 700224	주하윤 200901	장유진 871019	주형진 최은지	입교
최서현 680711	주용택 백성희	최재석 661017		이하은 000328
최정진 420717	주하준 231010	유아	■대학청년부	장민규 971228
최현화 720805	주용택 백성희	맹다엘 231211	여호수아	
입교	추아인 230224	맹형진 정한나	권세라 920622	SNS
김준서 090328	추대관 한미정	박시은 240307	방성미 821223	김범준 940215
김호재 000504		박지원 이효정	원정현 970616	서주연 880319
유아	■양재	양하건 231011	입교	이유진 990220
공지호 240718	권은경 651025	양정우 오정은	류시은 940918	입교
공인원 임나현	김보경 881102	이하림 240919	전다인 970912	강하민 970908
김주량 231210	김정기 440717	이상기 이소진	유아	
김용상 정혜윤	김태원 990710	장주원 231125	윤다은 241031	

〈생명의 삶〉정기구독 신청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 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11 전도학교 수료 간증



/ 김리라 성도(서산온누리교회)

기도와 전도 그리고
예비하는 삶

지난해, 서산온누리교회에서 부여 지역 교회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오랜만에 복음을 나누는 사역에 참여하며 성도들과 함께 기쁨을 누렸다. 그런데 그 기쁨이 일상으로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는데, 전도학교에서 다시 복음을 나눌 기회를 얻었다.

처음에는 기대보다 부담이 컸다. 강의와 숙제, 전도 전문 암기, 관계 전도 실천까지 박찬 일정에 후회가 밀려왔다. 한 성도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을 다잡고 겸손하지 못했던 나를 돌아보며 전도 전문을 성실히 외었다.

가장 큰 부담은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 준비는 했지만, 막상 친정에 가니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내가 결정할 것은 순종이었다. 일단 엄마에게 전도 전문으로 전도를 했다. 엄마는 영접기도를 하셨고, 나는 동네 교회에 갈 것을 권면했다. 다음날은 아빠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와서 전도 전문을 들려주며 복음을 전했다. 크게 따라 기도하시진 못했지만,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응답하셨다. 과거에는 부모님께 억지로 영접기도를 따라 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두 분 모두 진심 어린 반응을 해주셔서 감사했다.

을 해주셔서 감사했다.

관계 전도를 마치고는 혹시나 잊어버릴까 전도 전문을 매일 연습했다. 연습을 반복할수록 복음이 마음에 더욱 깊이 새겨졌다. 마치 어떤 전도자가 내게 직접 말하는 것 같았다.

“이제 선생님은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단지 복음을 받아들이려 구원만 받고, 그 복음을 땅에 묻고, 그 복음을 나누지 않고 살아갈 것인지, 그 은혜의 복음을 나누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인지 말입니다. 선생님,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그 물음은 나를 향한 것이었다. 나는 “네”라고 대답했다. 전도 전문을 외울수록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었다. 그 평안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를 기쁘시게 할 때 주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복음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하는 길이자,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시키는 통로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사 49:16)라는 말씀을 품고, 잃어버린 형제자매들을 위한 기도나 전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더 나아가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을 살 것이다.

1105기 양재와이미션 수료 간증



/ 안형준 성도(경기A공동체)

선교사적 삶!

10년 전, 한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며 선교 비전을 받은 경험이 있다. 그 마음을 품고 T국으로 단기선교를 갔다. 그곳에서 나는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평생 잊지 못할 하나님 은혜와 역사하심을 누렸다. 그 일을 계기로 장기 선교사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주변의 큰 반대로 할 수 없었다. 결국 나는 내가 갔던 T국과 열방을 위해 보내는 선교사로 기도하며 살아가게 되었다. 하지만 회사 생활과 연애, 결혼 등 바쁜 생활로 기도 시간이 점점 줄었고, 어느새 선교적 마음을 잊고 말았다.

결혼한 후, 아내를 따라 온누리교회로 옮겼다. 일대일 양육에서 만난 멘토님들을 통해 와이미션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큰 마음이 없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부어주셨고 부부가 함께 선교 비전을 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참가신청을 했다. 와이미션을 시작하면서 기도제목을 많이 품게 되었다. ‘선교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가정에 새로운 축복의 열매가 생기기를’, ‘장인어른 신장암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가정에 선교 비전이

세워지기를’ 기도했다. 놀랍게도 와이미션을 수강하면서 이 기도제목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었다. 또 와이미션을 통해 하나님 없이는 선교든, 전도든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금 깨달았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이루는 힘의 근원임을 계속 고백하게 됐다. 수많은 선교사님의 목숨 건 희생과 헌신이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크신 계획이라는 것도 깊이 깨달았다.

그동안 보내는 선교사로 기도만 하던 나에게 이 모든 것이 큰 은혜이자 도전이었다. 선교사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마음도 새롭게 주셨다. 선교사님과 만남을 통해 현지 생활이 얼마나 어렵고, 한 영혼이 주께 돌아와 교회가 되기까지 수많은 기도와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었다. 늘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인지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열방과 민족을 위해 중보기도 하며 내가 있는 환경에서 선교사적 삶을 감당하기를 소망한다.

1136기 어머니학교 수료 간증



/ 코바야시 메구 전도사(서빙고일본어예배)

나는 열방의 어머니!

스무 살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전도사의 인생을 걸어왔다. 그러다 2023년 하나님 은혜로 당시 일본어예배를 함께 섬겼던 사랑하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했다. 여전히 바쁘게 사역하던 나는 집에서 남편과 이야기 나누는 여유를 갖기 어려웠다. 교회에서는 정신없이 사역하지만, 가정에서는 아내로서 남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못하고, 잘 돌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늘 미안했다.

어느 날, 난소에 큰 종양이 발견되면서 급히 수술하게 됐다. 하고 있던 모든 사역을 쉬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셨다. 하나님이 남편에게 목회자의 사명을 부어주셨고, 지난해 8월 우리 부부를 한국으로 인도하셨다. 이 시기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머니학교를 선물로 주셨다.

나는 어머니학교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머물며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 회복했다. 돌이켜봤더니 나는 장녀로 태어나 책임감 강한 아이로 자랐기 때문에 교회 사역도, 집안일도 많은 일을 완벽하게 해냄으로써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었던 것 같다. 어머니학교 강사님들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깊이 숨어있던 연약함과 교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내가

실수하고 부족해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며, 언제나 나를 기뻐하신다는 건강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강사님 말씀 중에 “완벽한 어머니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어머니가 좋은 어머니입니다”라는 메시지가 지금도 마음 깊이 남아 있다. 자신의 힘을 완전히 내려놓고, 나의 시선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바라보며, 건강한 여성, 행복한 아내, 따뜻한 어머니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고 싶다. 사랑하는 남편과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 미래에 주어지는 아이들을 잘 키우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열방의 어머니’라는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일본에서 차세대들과 여성 예배를 맡고 있었다. 그러면서 부모님의 사랑에 메마른 아이들과 부부관계에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어머니들, 아이 키우면서 지쳐있는 어머니들을 많이 만났다. 어머니학교를 수료하면서 일본에 있는 아이들과 어머니들이 생각났다. 일본에 다시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열방의 어머니’라는 사명을 가슴에 품고, 그 아이들과 어머니들을 사랑으로 품는 어머니가 되고 싶다.

창조과학탐사를 다녀와서



/ 김기복 집사(평택온누리교회)

창조주 손길 따라 걷는 여정

창조과학탐사 500회에 함께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몇 주 전 주일,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창조과학탐사 참여를 독려했다. 그 말씀이 꼭 하나님 음성처럼 마음 깊이 와닿았다. 꼭 한번 가봐야겠다는 결단이 섰고, 마침 평택온누리교회에서 미국 창조과학탐사 일정을 공지하며 참가자 모집을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공지였는데도 많은 성도가 신청했고, 기도로 준비하며 한 걸음씩 나아갔다.

이번 창조과학탐사에는 평택온누리교회 성도 17명, 영종온누리교회 성도 17명이 참가했다. 총 34명이 창조주의 손길을 따라 은혜의 여정을 마쳤다. 창조과학탐사 1일 차, 모하비 사막과 66번 도로를 지나며 창조주의 크고 깊은 은혜를 묵상했다. 화석, 지층, 석탄의 형성과 노아 홍수에 대한 설명은 성경적 세계관을 더욱 분명히 해주었다. 2일 차에는 운석, 규화물 등 동일 과정설과 격변적 판구조설 설명을 들었다. 노아 홍수 이후 협곡들이 격변적으로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3일 차, 그랜드 캐니언에 이르렀을 때는 <시편> 92편 말씀이 떠올랐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알지 못해도 그 뜻 가운데 서 있고자 하는 고백이 절로 나왔다. 그곳에서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 터져 나왔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나를 살리셨고, 온 세상을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진리와 사실을 검증했다. 이어진 영상교육에서는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진화론의 영향으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은 역사를 배웠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일본을 위해 기도했다. 대한민국도 우상이 무너져 나라와 교회, 가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4일 차에는 브라이스 캐니언과 자이언 캐니언을 탐방했다. <창세기>의 육화원칙을 기반으로 자연의 경관을 바라볼 때 신앙적 관념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었다. 한 권사님의 간증도 들었다. 그 권사님은 해마다 형편이 어려운 차세대가 창조과학탐사에 참여하도록 후원하신다고 했다. 큰 도전과 감동이 있었다.

차세대들이 꼭 한 번은 창조과학탐사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와 가정의 협력이 절실하다. 내가 받은 은혜가 더 많은 공동체로 흘러가기를 바란다.

무명 無名

나는 조선을 사랑하는 일본인 선교사입니다

★
기독교 영화 가운데
가장 탁월한 영화인 것 같다

- 김상복 목사 (할렐루야교회 원로) -

★
차가운 가슴도 뜨겁게
녹여내는 감동적인 실화!

- 김효선 작가(바울과 나) -

★
시대와 국적을
뛰어넘는 감동

- 네이버 elod**** -

★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이야기

- 롯데시네마 김*호 -

★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임을 깨닫게 해주는 영화

- 롯데시네마 강*우 -

★
이 영화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영화다

- 배우 권오중 -

★
이 영화는
이 시대를 향해 흘러보내야 할
뜨거운 사랑의 물결이다.

- 네이버 part**** -

절찬상영중

★ 영화 '무명 (無名)' 예매 방법 ★

롯데시네마  홈페이지/앱에 접속 후
로그인 하시고 아래 순서로 예매 진행 가능합니다.

PC 상단 <예매> 클릭 → 지역 → 영화관 → 영화(무명) → 날짜 → 시간 → 좌석 선택 후 예매
모바일 중앙 하단 <바로 예매> 클릭 → 영화(무명) → 영화관 → 날짜 → 상영관 → 시간 → 인원
→ 날짜 좌석 선택 후 예매